

하느님의 말씀

762. 깊고 친밀하며,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두근거리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계시된 “말씀”의 현존입니다. 사랑스러운 현존, 맛스런 우정...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추적하고 꿰뚫고, 나의 내면을 부수는 동시에 생명을 줍니다. 마치 신앙으로 밝혀진 지성의 길을 통해 나와 대화하시는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처럼 참으로 은밀한 대화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외에 그 누구도 이토록 친밀하게 나와 대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께서 나의 은밀한 세계 안에 울려 퍼지며 내 생각들을 읽으시고 날카로운 쌍날칼 같이 내 영혼과 내 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시험하고 점검하며 나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여, 저의 친밀한 벗이여! 당신의 영원한 비밀을 제게 알려주소서.

763. 우리 어머니이신 성교회는 그대의 두 손 위에, 그대 마음 안에 그리고 그대의 입술에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놓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의 귀에 대고 속삭이시니, 침묵 중에 들으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764. 하느님의 "말씀"은 침묵 중에 들려옵니다. 그것을 경청하고 육화시키십시오. 그 말씀께서 그대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인도하시고, 승화시켜주실 것입니다.

765. 하느님의 영원하신 '말씀'... 사랑이신 분께 온전히 봉헌된 삶의 비밀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그늘 아래(Sub umbra illius)", 시편의 이 신적인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비밀... 누가 과연 시편 안에 담긴 이 무한한 비밀들을 열어 누릴 수 있을런지요!

766. 복음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의 사명입니다. 그대 자신이 복음으로 전염된 신비가 되십시오.
하느님의 숨결이 간직된 이 책보다 더 전염성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신적인 숨결을 차지하고 그대 것으로 만드십시오.

767.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분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의 주옥 같은 선율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그 말씀의 신비 아래, 하느님의 모든 계획과 갈망, 그분께서 당신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구체적으로 그대 영혼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그 샘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나의 그리스도... 저는 항상 당신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죽기까지 당신께 충실하고 싶습니다. 향구하게 당신을 찬미하며 사랑의 충만함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768. 여기, 그대의 두 눈을 위한 빛과, 그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신비가 그대의 것이요, 그 신비가 바로, 여기 하느님의 신비스런 말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차지 하기 위해 용감 하십시오.

769.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시편 구석 구석에 그분께서 계십니다. 만나지 못한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십시오. 언제나 하느님을 찾는 영혼이 되십시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찾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당신을 내어 주십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맛”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입니다. 성무일도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대 눈 앞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대화하십시오.

770.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계 전체를 생명으로 전율케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 입술에 간직할 때, 그대의 삶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전율과 같은 이 힘을 잘 이용하십시오. 이 신적인 힘에서 나오는 신비스런 열기 없이 추위로 죽어가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실로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771. 나의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 목마른 순례자의 귓전에 울리는 감미로운 소리...! 당신은 내 눈의 빛, 나의 갈증을 위한 생명의 물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772. “말씀이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10;1)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대가 이 신비스러운 말씀의 메아리가 되고, 그대의 삶이 언제나 살아있는 계시, 복음의 차원을 지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시된 말씀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똑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 영혼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와 똑 같은 것이 그대 영혼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대 영혼의 맥박을 짚어 보십시오... 그대를 감동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 가장 깊은 곳에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정화시키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힘, 그분의 숨결, 그분의 입김, 살아있는 그 고동소리만 남게 하십시오.

773.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열의와 깊은 감각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모두, 아주 깊이 꿰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지극히 충실해야 합니다.

774. 영원하고 신비스러운 이 하느님의 말씀은 연약한 이들을 굳세게 하고, 무력한 이들을 강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인간의 허무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이고 위대한 것을 정복하는 무기입니다. 진흙 속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입니다.

775. 봉쇄수녀는 자신의 손에 들려진 성무일도서로 온 우주를 전율케 합니다. 피조물 전체가 살아있는 찬미로 변화됩니다. 이는 야훼의 영광의 메아리입니다.

776. 하느님의 말씀... 성부의 말씀. 그대 영혼은 여기에서 견고한 양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777. 영원한 말씀의 문에서 당신의 신비에 흠뻑 취하여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한없는 당신 사랑의 울창한 숲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저의 삶을 투신하렵니다. 당신의 문에는 삶을 전율케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전율 속에 제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한계 없는 내어줌과 부드러움과 사랑의 신비를 새로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778. 내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여! 예리한 쌍날칼과도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꿰뚫으시어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신을 위해 활짝 열려있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자매들 앞에 열려있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나이다.

779. 성무일도는 헤아릴 수 없는 신적 무게를 삶에 제공합니다. 야훼의 굳건한 바위 위에 영혼이 자리잡게 합니다.

780.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분의 법과 명령들 안에 우리 삶의 비밀이 모두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781. 날마다 열정을 지니고 성무일도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들으러 가십시오. 또한 침묵하는 영혼이 되어 하루 일과를 성무일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782. 성무일도는 축성된 영혼의 신비스런 힘입니다. 우리영혼들을 위해 불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말씀을 성무일도에서 만납니다.

성무일도의 무한한 고동 소리로 내 영혼의 절규를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속에서 영원한 물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며 이 목마름을 식혀주는 거룩한 물을 만나게 됩니다.

축성된 영혼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성무일도로 하느님을 조종하며 그분을 통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783.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이 접촉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사랑과 기쁨, 이해심으로 넘쳐나고 모든 이를 위한 생명으로 넘쳐 흐르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죽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84. 풍요하고 따스한 내 하느님의 말씀이여, 영원에서 당신을 충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당신의 메아리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785. “하느님 말씀의 생생한 표현이 되는 것” 이것을 그대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까? 복음의 대양에 그대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 안에서 마시고 그 심연 속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신비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십시오.

786. 관상하는 영혼은 모두 하느님 말씀의 무한한 풍요 안에서 자신의 양식과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전례의 풍요로움 안에서, 시편의 신비들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이 제공됩니다. 하느님의 눈길을 읽고 찾으십시오. 그 은빛 물결 아래 숨어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787. 그대의 표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이 찾고 바라는 것을 감지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 그 신비가 그대 안에서 하느님의 온 힘으로 숨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묻어 버리십시오. 그 안에 잠기십시오.

788. “말씀이 육이 되셨다.” 그리고 노래와 침묵이 되셨고 모두

이를 위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의 힘이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께서 우리의 보화요 비밀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 삶 전체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는 성자와 함께 노래하고 또 그 분의 신비와 함께 침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자녀가 된 당신 피조물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유배 생활의 전부입니다. 항상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너라” 하시는 그 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